

##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만들지는 맙시다

김상철 / 서울위생병원 임상병리과장

5년전쯤일 겁니다.

밤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에 말투에 취기가 있는 어느분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너무 건방져!” “꼭연은 기호중 하나인데, 당신은 왜 흡연자는 배척하고 비흡연자의 혐연권만 편을 드나?” 혐연권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흡연권도 인정해야되지 않느냐는 일종의 꾸중이었습니다.

모 방송국을 통한 대담 방송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예로 들어서 흡연의 영향은 꼭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에게는 “공해”의 일종으로까지 작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없습니까.

금연 캠페인을 위한 피켓을 들고 가거나 어깨띠를 두르고 팜프렛을 나누어 드리면 입에 물고 가던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으려고 담배를 뒤로 숨기기도 합니다.

비흡연자들 앞에서 꼭연을 즐기기에 흡연자들 스스로가 어느만큼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흡연의 유해성이 알려 졌다고 믿어지는 현상입니다.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하지 않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지만 영어로는 “Passive Smoting” 수동흡연 또는 “Involuntary Smoking”불수의 흡연이라고 합니다.

피우기 싫은데 타의에 의해 강제로 피우게 될 수밖에 없거나, 전혀 내뜻이 아니게 남의 의도로 인해 흡연현상에 당면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일때 명강의 이셨던 영작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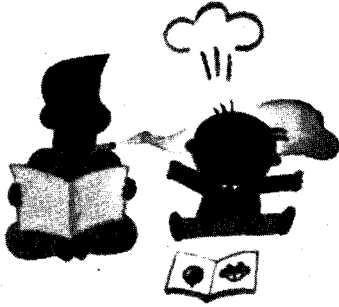
선생님께서서는 워낙 골초이셨기 때문에 수업중에도 담배를 물고 계시다 시피 하셨고,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는 중에도 물고 계셨고, 시험시간중에도 담배를 물고 계셨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학우들과 함께 공중목욕탕엘 갔었는데, 이곳에서 만난 선생님은 탕안에서까지도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영작문 선생님께서는 한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자신이 직접 흡연의 당사자 이시면서도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되신것입니다.

늘 입에 물고 계셨던 담배의 생연기



꺾연자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새싹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류연이라고 합니다.)로 인해 안질이 생기셨고 결국은 한쪽 안구를 잃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특별한 경우 말고도 우리는 꽤나 자주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로 퇴근할 때 아주 암전하게 생긴 숙녀의 머리칼에서 구질구질한, 어찌면 역겹기도한 담배연기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는 경우를 곧잘 경험합니다.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맛있게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환담한 일 밖에 없는 데도 담배연기 냄새가 계속 따라 다닙니다.

다른이들이 피운 담배연기가 옷가지들과 머리카락에 배어든 때문이지요.

이렇게 담배연기가 배어든 옷가지들을 집안 옷장에 뒀다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도 역시 냄새가 납니다.

옷에서 옷으로 냄새가 오염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들에서는 목욕을 하고 옷가지들은 방향제 처리나 세탁을 해버리면 해결이 되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 혹은 형들이 좁은 공간에서 흡연을 즐길때, 곁에 어린 손자, 손녀, 아들,

딸,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있다면 이런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한쪽 눈을 빼앗을 만큼 잔인하고 독한 생담배 태우는 연기인 부류연에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꺾연 당사자는 개량된 쥘련의 휠타로 담배연기내의 유해물질은 어느정도 걸러서 들이 마시는 것이겠지만 곁에서 노출된 어린이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걸러지지 않는 부류연으로 인해 “수동흡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의 체표면 넓이와 어린이들의 체표면 넓이를 비교하고 주류연의 내용물 농도와 부류연의 내용물의 농도를 비교해 본다면, 실제로는 걸러진 주류연을 즐기는 흡연자 자신보다도 걸러지지 못한 부류연으로 인해 ‘불수의 흡연’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지는 불을 보듯 환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랜시간 경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꺾연자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새싹들의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 “간접흡연”의 피해자를 만들자 않아야 되겠습니다. 卍